서울주보

제2463호 2023년 8월 27일(가해)
연중 제21주일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카카오채널 https://pf.kakao.com/_xhGxjBxb | **인스타그램** @seoul_jubo | **유튜브** @catholictube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교회 | 이남규 루카, 각 60x500cm, 탈드베르 기법, 1983년, 수원교구 여주성당

입 당 송 | 시편 86(85),1-3 참조

주님, 귀를 기울이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 종을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1독서 | 이사 22,19-23

화 답 송 | 시편 138(137),1과 2ㄴ.2ㄱㄷ과 3.6과 8ㄴㄷ(◎ 8ㄴㄷ 참조)

◎ 주님, 당신 자애 영원하시니 손수 빚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 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를 굽어보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알아보시나이다.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빚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제2독서 | 로마 11,33-36

복음환호송 | 마태 16,18 참조

◎ 알렐루야.

○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

복 음 | 마태 16,13-20

영성체송 | 시편 104(103),13-15 참조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라디오 FM 105.3MHz /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skylife 184번 / GENIE TV 231번 / Btv 297번 / U+tv 274번

생명의 말씀

우리 모두는 교회의 반석입니다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 | 사회사목국 부국장

제가 신학교 입학 면접을 볼 때 한 교수 신부님께서 "어떤 사제가 되고 싶냐?"라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정해진(?) 모범 답안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 신부님의 다음 말씀은 정해진(?)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본인만의 사제상을 만들면 좋겠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수 신부님의 이 말씀이 항상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제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본당의 주임 신부님들과 보좌 신부님들 그리고 동기들이 얘기해 주는 다른 신부님들의 삶의 모습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 나름대로 답을 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제도 좋지만 먼저 기본이라도 잘하는 사제가 되어야겠다.'라고 말입니다.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운동을 잘하는 사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그런 것들은 사제가 아니어도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반면, 미사와 성사를 잘하는 것은 사제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사제가 되고 싶냐?' 또는 '어떤 사제로 살아가고 있냐?'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기본이라도 잘하는 사제가 되고 싶다." 또는 "기본이라도 잘하는 사제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기초가 튼튼한 사람의 일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중심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기초가 부실한 사람의 일은 한때 잘 나갈 수는 있지만 단 한 번의 위기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교회의 반석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교회의 반석(盤石)입니다. 곧, 교회의 가장 탄탄한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라는 기초가 흔들리면 교회라는 큰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저는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보잘것없지만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켜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같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누가 될 수도 있다는 사명감 때문이지요. 그 마음이 바로 기본이라도 잘하는 사제의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교회의 반석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충실히 자기 몫을 해 나간다면, 지난 이천 년간 그랬던 것처럼 최근 교회에 닥친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가 안 해도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교회는 지난 이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위기를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작품 설명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마태 16,16)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사도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뛰어넘어 더 깊은 의미와 진리를 탐구하려는 베드로 사도의 의지와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스테인드글라스도 사도께서 받으셨던 것과 같은 질문을 저에게 던지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곤 합니다. 성탄, 수난, 부활, 성령, 공동체 등 스테인드글라스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성전의 공간 안에서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며 그러한 묵상 거리를 제공하는 것만 같습니다.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말씀의 이삭

김재홍 사도요한
한국시인협회 사무총장

하느님께 기도하는 나날들

22년 동안의 방송사 생활을 접겠다는 결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대학에 다니는 아이가 둘이나 있었고, 무엇보다 생계를 의탁할 뚜렷한 직장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수입이라야 원고료와 강연료 등을 합쳐 월 100만 원도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규칙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기에 저의 결정은 어쩌면 무모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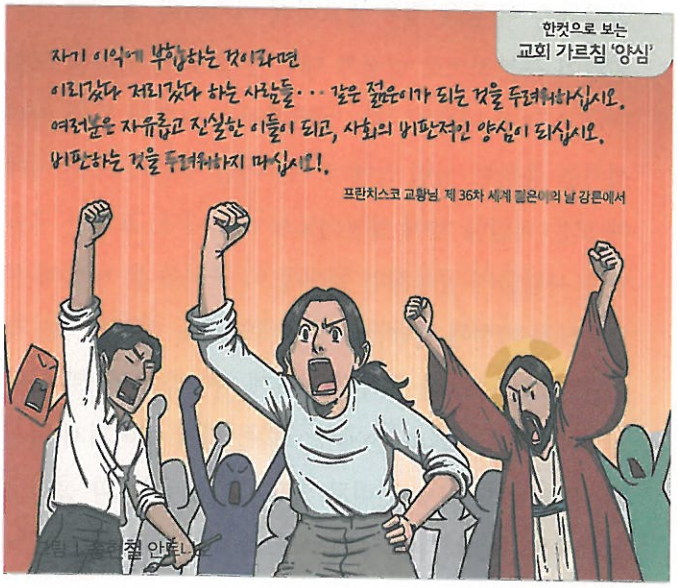
그러나 안면 근육이 마비돼 입이 돌아가고(구안와사), 시속 90km로 달리던 자유로에서 갑자기 기절하여 응급차를 타는 신세가 되는 등 회사 생활은 갈수록 저를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시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상당한 정신 에너지를 업무에 소진하다 보니 갈수록 시단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고립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거기에다 일시에 목돈을 받게 되는 명예퇴직금도 꽤 솔깃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기도를 바치고 마침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생활비와 교육비를 떼놓고 채무를 상환하고 나니 별로 남는 게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열심히 공부하면서 진짜 배고픈 소크라테스로 살겠다는 의욕만큼은 컸습니다. 횡성군에 있는 '예버덩 문학의 집'으로 가서 시집 원고를 정리하여 출판사에 넘기고,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뒤늦은 만큼 마음을 다해 공부하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책 읽고 시 쓰고 사색하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코로나19가 와서 온 세상이 힘들어했지만, 어차피 집안에만 있어야 했던 저로서는 확실한 핑곗거리 하나를 얻은 셈이었습니다. 그것도 3년 가까운 시간이었으니 실직자의 체면 챙기기에 조금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 5년이 흘러 저는 새 시집을 내었고,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평론가로 등단했고, 곧 에세이집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 8년 동안 신앙인으로 살면서 가톨릭 방송인들의 모임 사무국장과 독서를 통한 복음화 운동을 이끌고 있는 단체의 사무국장을 맡는 등 작은 봉사로 큰 기쁨을 누리기도 했으며, 주제넘게도 꾸르실료 체험을 하는가 하면 교계 잡지의 편집장 노릇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양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더 이상 기갈 든 행려자처럼 방황하지 않고 저의 일상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기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의 기도는 그칠 수 없습니다. 이 비루한 영혼을 온전히 하느님께 바칠 수 있으려면 평생을 다 바쳐도 모자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겉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속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방송인에서 시인이자 평론가에 문학 연구자까지 되었지만, 속은 여전히 부실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하루를 이어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기도는 끝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가톨릭 신학

25

교회를 믿나이다

최현순 데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20세기 신학자 칼 라너는 말년에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성녀 아빌라의 데레사는 "나는 교회의 딸입니다."라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평생 교회 안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셨을까요? 칼 라너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가톨릭 신학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분이셨지만, 교회 안에서 잘 이해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가르멜 수도 공동체를 세우셨던 아빌라의 데레사도 그 순수한 의도를 이해받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교회에 대한 신앙고백에서 두 가지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은 사도신경이나 니케아-콘스탄티노플신경 모두에서 "성령을 믿으며"라는 신앙고백문과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교회에 대한 신앙이 근본적으로 성령께 대한 신앙 안에 있음을 드러낸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의 뜻에 따라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 안에 실현되도록 하십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동시에 이 구원을 온 세상에 선포하도록 파견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께 나아가게 할 뿐 아니라,(에페 2,18 참조)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항상 젊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진리로 인도하시고, 친교와 봉사로 일치시켜 주십니다.(교회헌장 4항 참조) 교회를 살게 하시는 분은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성령을 몸 안에서 영혼이 하는 일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교회와 성령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사도신경과 니케아-콘스탄티노플신경 모두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또 다른 특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경의 라틴어 원문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고 할 때는, 'credo in Patrem(성부를 믿나이다)'처럼 그 앞에 전치사 '인(in)'을 사용합니다. 반면 교회라는 단어 앞에는 이 전치사가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신학자들은 이 점에 주목했는데, 교회를 믿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방식과 같지 않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그분의 업적을 혼동하지 말아야 하며,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 내리신 모든 선물이 하느님의 선에서 오는 것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750항)

교회는 자신 안에 스스로 기초를 갖지 않습니다. 교회의 원천은 삼위일체 하느님이며, 교회의 삶은 성령께 의존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교회를 믿는다'는 말은 '교회적으로' 믿는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가 믿는 바를, 교회가 믿는 방식으로 믿는 것이며, 이는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촉구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앙리 드 뤼박의 말처럼,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업적으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며, 교회가 하느님의 구원이 효과적으로 발생하는 장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들의 기쁨과 삶을 담은 사도행전 읽기

애정의 코린토 교회
(18,1-23)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아테네 선교를 마친 바오로는 남쪽으로 내려가 코린토 지역에 도착합니다. 아테네에서 복음 선포가 문화적 차이 때문에 힘들었듯이, 코린토 지역은 문란한 삶의 방식 때문에 힘겨웠습니다.

코린토는 아드리아해와 에게해를 잇는 운하가 있던 항구도시이고,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대륙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지리적 조건 때문에, 문화와 학문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가 심했을 뿐만 아니라 문란한 삶을 대표하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코린토 서간을 보면, 불륜과 성적 타락에 대한 바오로의 따가운 지적을 볼 수 있고,(1코린 5,1-13; 6,12-20 참조) 교회 모임 때 가난한 이들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 나눔이 없는 식사를 했다는 기록도 보입니다.(11,17-22 참조) 바오로는 편지를 보내 그들의 생활을 바로 잡아주고자 노력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남겨진 편지는 코린토 첫째와 둘째 서간밖에 없지만, 학자들은 적어도 4통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많은 편지를 보낸 것으로 바오로가 코린토 교회에 얼마나 큰 애정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오로가 코린토에서 새로운 동료를 만난 사실을 전해 줍니다. '아퀼라와 프리스킬라'라는 부부입니다. 이들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추방 명령으로 로마를 떠나 코린토 지역에 온 사람들입니다. 황제의 추방 명령은 유다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에서 벌어진 메시아에 관한 논쟁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바오로는 이들 부부와 함께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였고, 그 결실은 코린토 첫째 서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포스와 가이오스, 스테파나스 집안의 사람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1코린 1,14-16) 바오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내라는 주님의 환시 후, 1년 6개월 동안 코린토에 머물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바오로는 유다인들에게 이끌려 아카이아 총독이었던 갈리오에게 붙잡혀 갑니다. 갈리오는 로마인으로, 바오로와 유다인들 사이에 종교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는 것을 알기에 재판을 열기 전에 그들을 법정에서 몰아냅니다. 이를 통해 그 당시 로마 관리자들이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를 유다교의 한 분파로 보는 시각입니다. 바오로는 한동안 코린토에 머물다 아퀼라와 프리스킬라 부부와 함께 에페소로 갔고, 이 부부를 에페소에 남겨 놓은 다음, 카이사리아까지 혼자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인사한 다음, 안티오키아로 돌아갑니다. 이로써 바오로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바오로는 끝인사로 자신의 사랑을 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1코린 16,24) 코린토 신자들이 신앙 안에서 잘 살지는 못했지만, 바오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삶을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엄격한 아버지처럼 때로는 따스한 어머니처럼 격려해 주었습니다. 회개란 엄한 훈계와 충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는 사랑이 동반되어야 완성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이 회개를 완성하는 근원입니다.

홍보위원회가 전하는
WYD 특집

WYD
세계청년대회
현장스케치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공식 누리집
사진 제공: WYD LISBON 2023

7월 WYD 안내서 | 8월 WYD 현장 스케치 | 9월 WYD 후일담

홍보위원회 언론홍보팀

8월 1일(화)부터 6일(주일)까지,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는 "제37차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WYD, Word Youth Day)"가 진행됐습니다. 그 뜨거웠던 현장을 사진으로 만나보세요!

"아시아, 한국의 서울에서!"

이번 대회 파견 미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서울'을 차기 개최지로 발표하셨습니다!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님은 "서울 WYD를 '모든 인류의 선익을 위한 행사'로 만들겠다."라고 차기 개최지 선정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교황님의 젊은이들!"

대회 기간 내내 리스본 시내 곳곳을 가득 메운 소리. 교황님이 오실 때마다 순례자들은 "우리는 교황님의 젊은이들!(Esta é a juventude do Papa!)"을 연호하며 교황님을 환영했습니다.

리스본 중심지에서 울려 퍼진 우리 가락

리스본에 있는 많은 광장마다, 세계 각국의 순례자들이 고국의 노래와 춤을 즐기는 흥겨운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인천교구 순례단에서 연주하는 사물놀이 가락이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현존'을 지닌 존엄한 존재,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상대방을 존중해야"

콘퍼런스·전시회·공연·스포츠 행사 등으로 구성된 유스페스티벌(Youth Festival)의 일환으로 진행된 '믿음의 밤'(Faith's Night Out) 행사에서 강연 중인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님.

이날 교구장님은 전 세계 2,500여 명의 청소년·청년들에게 "매일 습관처럼 만나는 가족은 물론, 무심히 지나치는 가난한 이웃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순례단 모여라!

한국어 교리교육이 진행된 '묵주기도의 파티마 성모 성당(Our Lady of the Rosary of Fatima)' 앞에서, 마지막 교리교육이 끝나고 단체 사진 한컷!

시티오브조이(City of Joy) - 화해공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시티오브조이 프로그램 중 하나인 고해성사를 위해 설치된 야외 고해소에서, 3명의 젊은이에게 성사를 주셨습니다. 리스본 대회 기간 중 공원에는 재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 포르투갈의 수감자들이 만든 150개의 야외 고해소가 설치됐습니다.

교황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

앙상블23(Ensemble23, 22개국의 예술가들로 구성된 리스본 대회의 퍼포먼스팀)의 공연과 더불어 '십자가의 길'이 진행되는 동안, 순례자들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폭력·외로움과 중독 문제·기후와 식량 위기·세계의 불균형·난민과 사회적 약자·가짜 뉴스·억압된 자유와 차별에 관한 문제 등을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포장된 유혹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홍보국장

앞서, 영적인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더라도,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지금 내가 있는 곳)를 성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지금 나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 이게 지금 내 모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입니다.

자기 모습이나 처한 상황에 대해 만족할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한 말이나 행동 또 자주 반복하는 습관을 금세 판단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난 왜 이 모양이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자신에게 낮은 점수를 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죠.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못마땅해하는 마음에 덧붙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식과 죄책감입니다. 이런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가톨릭교회는 신자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너무 많이 느끼게 해요." 어떠세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다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한편으로 충분히 공감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완전하신 하느님 아버지를 닮아 우리도 완전해지라는 초대를 받았지만,(마태 5,48 참조) 하느님의 거룩함과 너무나 다른 자기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죄의식을 갖게 되죠.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계명을 잘 지키며 살고 싶은데, 계명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보면 곧바로 죄책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삶의 많은 순간에 이런 움직임이 자동으로 일어나다 보니 자기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하죠? 지금 보이는 내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게 잘 안 되면 마치 다른 모습인 양 나를 포장합니다. 그렇게 포장한 내 모습을 누가 알려주기라도 하면 그 사람에게 화가 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모습을 성찰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많은 나 자신인데, 여기에 죄의식까지 더해진다면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차리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을 알기 위해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성찰이 현재 나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아니라 맹목적인 자기비판이나 죄의식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우리 영성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땅히 가져야 할 건강한 죄의식과 죄책감은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지만, 그릇된 죄의식과 죄책감은 우리를 하느님께로부터 숨게(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죄의식은 악마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에페 6,11)

상단 큐알(QR)코드를 통해 지난 연재글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소식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015년 전 세계의 모든 신자가 생태적 회개를 하고 생태계 회복을 위해 투신하라고 요청 하시면서 매년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로 제정하셨습니다.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 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교회메시 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천주교서울대교구 묘원 성묘 안내
1) 천주교 용인추모공원 추석 성묘 안내
미사: 9월24일(일) 오전 10시
차량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장묘관리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미리 전화예약(02-727-2225)후 송금하셔야 자리배정이 가능합니다

오전 9시	명동 출발	10분 전 승차 요망(교구청 앞)
오전 10시	미사 예정	용인묘원 경당(김수환 추기경 기념 경당) 명동 출발 차량 도착 시간에 따라 변동 가능
오후 2시	용인 출발	10분 전 승차 요망

성묘객중 자가용 이용자 명동대성당 주차 불가
승차권 예매: 8월28일(월)부터 선착순 자리배정
(1매 1만5천원 / 조기마감 가능)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604-153436 천주교용인추모공원 / 문의: 02)727-2225 장묘관리팀
2) 천주교 비봉추모관 추석 성묘 안내
미사: 9월24일(일) 오전 11시
미사장소: 비봉추모관 명례방
명동 및 도림동성당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 미사관련문의: 031)355-0191 비봉추모관 관리사무소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77년 8월 29일 유수철 도미니코 신부(59세)
- 1999년 9월 1일 봉경종 요한 신부(44세)
- 2003년 9월 2일 김승훈 마티아 신부(64세)
- 2008년 8월 30일 최주호 대건안드레아 신부(59세)
- 2019년 8월 30일 김대성 바오로 신부(94세)

교구청 알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미사
주례: 박현동 아빠스와 사제단
때, 곳: 9월1일(금) 16시, 명동대성당
문의: 02)460-7622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 회비 없음
때, 곳: 9월7일(목) 14시~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송영호 국장 신부(해외선교봉사국)
문의: 02)727-2407, 2409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갤러리1898 특별기획 이남규 30주기 기념전 〈'생명의 빛' 위로와 환희〉: 전관
전시일정: 9월6일(수)~21일(목)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때, 곳: 8월31일(목) 19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주제: 가려진 노동자(마루시공 노동자)
주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주관: 노동사목위원회 / 문의: 02)924-2721

수도자 성체 분배 직무교육
대상: 서울대교구 성체 분배 직무 규정에 따라 신규 · 갱신 교육이 필요한 교구 내 수도자
때: 9월19일(화) 14시~16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회비: 1만원(9월12일 마감)
사목국 홈페이지에서 접수 후 신청서 송부
문의: 02)727-2066 사목국 교육지원팀

'한국교회사연구소' 동인회 3차 특강
주제: 윤형중 신부의 전교활동
강사: 배명부 선생 / 무료 특강
때: 8월30일(수) 19시30분~20시50분
곳: 명동대성당 구내 교구 영성센터(구 계성여고) A104 호실
문의: 010-6764-7004 천 프란치스코

'9월愛 동행' 순교자성월을 여는 미사 안내
9월 순교자성월을 여는 미사는 순교영성을 실천하는 첫 걸음 입니다
서울대교구 각 성지성당에서도 미사가 있습니다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9월1일(금) 오전 10시	명동대성당 (1코스 말씀의 길 출발지)	손희송 총대리 주교
9월1일(금) 오전 10시	가회동성당 (2코스 생명의 길 출발지)	유경촌 주교
9월1일(금) 오전 10시	중림동 약현성당 (3코스 일치의 길 출발지)	구요비 주교

문화홍보국 문화팀 '2023 가을 문화학교' '명동, 겨울을 밝히다' 성탄마켓 참가 부스 공모
1) (2023 가을)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한국교회사연구소 공개대학	9월6일~11월1일 매주(수) 19시30분~20시50분
신앙, 인문학을 만나다	9월7일~11월9일 매주(목) 19시30분~21시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	9월8일~10월13일 매주(금) 10시~11시30분
테블릿으로 말씀카드 그리기(냇벤)	9월13일~10월18일 매주(수) 15시~17시
주님께 다가가는 글쓰기	9월14일~10월26일 매주(목) 19시30분~21시

2) '명동, 겨울을 밝히다' 성탄마켓 참가 부스 공모
때: 12월24일(일)~25일(월)
품목: 수공예 성물, 공예품, 성탄 관련 물품 등
9월17일까지 이메일(culture@seoul.catholic.kr) 접수
작품 이미지와 설명, 가격대, 작가 소개 포함
발표: 9월말 개별 통보 / 문의: 02)727-2047 문화홍보국

명동 직장인 금요미사 안내
때, 곳: 매주(금) 12시15분,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문의: 02)727-2078 직장사목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북녘 본당 갖기' 미사) / 문의: 02)727-2420
때, 곳: 1382차 미사 8월29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서울대교구 신천 본당, 송화 본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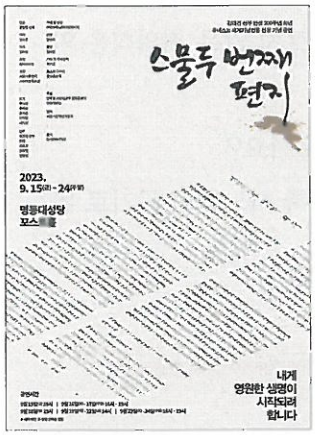
가톨릭 영유아(만 5세 미만) 부모교육
주제: 우리 아이와 기도 어떻게 할까요?
강사: 박종수 신부(서울대교구 청소년국)
때, 곳: 9월13일(수) 오전 10시~12시30분, 영성센터 202호(구 계성여고) & 온라인 교육(ZOOM)-양방향 동시 진행 / 8월28일(월) 10시~9월6일(수) 16시까지 유아부 홈페이지(www.catholicinfant.or.kr) 접수
문의: 02)727-2115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가톨릭학생회(KYCS-Cell) 회원 모집
가톨릭학생회는 로마교황청 산하 국제가톨릭학생회(IYCS-International Young Catholic Students)에 가입되어, 활동과 나눔을 통해 또래들과 체험을 공유하고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잘 어우러지며 건강히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가톨릭학생회로 자녀를 인도해 주세요
대상: 가톨릭 신자 청소년(14세~18세)
곳: 가톨릭 청소년회관(혜화동)
활동: 정기적인 학생모임 및 체험활동
문의: 02)742-4151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학교사목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kycs.or.kr/cell) 참조

향심기도 소개강의 및 월피정
지도: 이승구 신부 / 문의: 010-4565-8898
1) 향심기도 소개강의
대상: 누구나 / 회비: 1만원(4회)
때: 9월1일부터 매주(금) 14시~15시30분(4주간)
곳: 영성센터 A313호(구 계성여고)
2) 향심기도 월피정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곳: 영성센터 B201호(구 계성여고) / 회비: 1만원

직장인	9월3일(일) 13시30분~16시30분
일반인	9월4일(월) 13시30분~16시30분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선정 기념 공연

스물두 번째 편지

2023. 9.15.(금) - 9.24.(주일), 명동대성당 꼬스트홀

공연 시간
9월 15일(금) 19시 | 9월 16일(토) - 17일(주일) 16시 · 19시
9월 18일(월) 19시 | 9월 19일(화) - 22일(금) 14시 | 9월 23일(토) - 24일(주일) 16시 · 19시

김대건 신부님은 간절히 바라고 믿었던 하느님 나라를 위해 고난과 역경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신념과 용기가 있던 분입니다. 신부님의 편지를 따라 걷노라면 굳건한 신앙과 뜨거운 사랑으로 펄펄 살아 뛰었던 스물다섯의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예약 확인 후 당일 선착순 입장)

입장료: 1만원 | 문의: 02)3789-7702 | ✣ 유료 공연이오니 사전 예약자분들은 공연 30분 전에 미리 도착하셔서 티켓 수령 부탁드립니다.

사목국 '성서못자리' 2023년 후반기 강좌 / 문의: 02)727-2379
접수기간: 8월7일(월)~30일(수) / 선착순 인터넷 접수
접수: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성서못자리 신청' 통해 사전접수

1) 명동 오전 정기강좌(정기강좌 및 나눔터학교)
때, 곳: 9월4일~12월11일 매주(월), 명동 교구청 내 강의실(15주 강의)
강의시간: 10시30분~12시30분
개강미사: 9월4일 11시30분, 명동대성당
회비(교재 지급): 정기강좌 8만원, 나눔터 7만원
강사신부 및 강의실 홈페이지 참조

2) 청년(루카복음), 직장인(정기강좌 4권) 성서못자리
때: 9월6일~12월13일 매주(수) 19시30분~21시(15주 강의)
개강미사: 9월6일 19시30분, 명동 소성당
수강료(교재지급): 청년 5만원, 직장인 8만원

3) 미주 온라인(zoom) 성서못자리 정기강좌(4권-동부 화요반 · 서부 목요반 / 2권-동부 화요반)
수강기간: 9월5일~12월14일(매주 1회 60분 강의 / 한 학기 15회 수업) / 회비: 8만원(수수료 포함)

4) 온라인 성서못자리('에드위드' 플랫폼 활용)
수강기간: 9월4일~12월31일 / 회비: 10만원

인준단체 알림

모임

도미니코회 봉쇄수도원 젊은이 피정
문의(접수): 010-6561-2906(www.dominicocorea.com)

혼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곳: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 도쿄
회비: 115만원(3박4일) / 문의: 010-3645-9028

국악성가연구소 해외 성지순례
때, 곳: 9월8일~22일(14박15일), 터키-이스라엘
인솔: 강수근 신부 / 문의: 010-2279-0255

반장·구역장·레지오 단원 1일 피정
곳: 살레시오회 교육관(신길동) / 수시 접수
문의: 02)828-3522 살레시오회 관구관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18양천지구 성령 피정 / 문의: 010-9074-6527
강의·미사: 김종국 신부(토아올람)
때, 곳: 9월4일(월) 13시~16시30분, 양천성당

2023년 성모솔숲 무료 치유대(對)피정
값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때: 매월 둘째주(금~일) 2박3일 9월8일~10일·10월13일~15일·11월10일~12일 / 문의: 010-3209-3955 (문자 접수)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19차	9월8일(금)~16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120차	10월6일(금)~14일(토)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횡성) / 010-3340-0201

하느님, 바람, 나(힐링 피정)	9월8일(금)~10일(일)
성경완독	10월13일(금)~21일(토), 11월10일(금)~18일(토)
카타리나 피정의 집(개인 자체취사)	010-9715-1203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예수마음선교수녀회)
때, 곳: 9월22일~24일·10월27일~29일 (금) 17시~(일) 15시(2박3일), 수원교구 영성교육원
권민자 수녀 / 문의: 031)321-9054, 010-4154-0885

평화를 위한 토요기도회 및 미사
때, 곳: 412차 9월2일·413차 9월9일·414차 9월16일·415차 9월23일·416차 9월30일 매주(토) 15시·16시(미사), 참회와 속죄의 성당(파주)
문의: 031)941-2766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멈춤, 그리고 쉼-도심 속 침묵 피정
내용: 일상을 멈추고 온전한 쉼 안에서 하느님 만나기
때, 곳: 9월16일(토) 11시~17일(일) 11시, 노틀담 수녀회 교육관(종로구 북촌로 54) / 1인 1실
9월7일까지 접수 / 문의(접수): 02)333-9898 한국CLC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때, 곳: 매월 둘째주(토) 9월9일 14시~18시, 구산성지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 주제: 우리 신앙선조의 천주사랑의 불꽃은 바닷물로도 끌 수 없다
지도: 정종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 찬양: 고영민
회비: 1만원 /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부부 나들이 피정
강사: 홍성남 신부,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이성호 박사, 이요셉 소장, 김미희 강사 / 비신자 참여 가능
때, 곳: 10월21일(토) 14시~22일(일) 17시, 아론의 집
회비: 20만원(1부부) / 계좌: 신협 131-020-141399 천주교서울대교구(입금 후 연락)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010-3661-5500 고영민 부회장(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은총의 시간,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9월16일~19일(추자도)·9월23일~25일·10월1일~3일·10월7일~9일·10월12일~14일·10월17일~19일·10월20일~22일·10월24일~26일, **연말연시(해넘이·해돋이·눈꽃산행)** 12월30일~2024년 1월2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 순례	9월3일~5일, 9월16일~18일, 10월2일~4일, 10월29일~31일, 11월16일~18일, 11월21일~23일
성지순례 (추자도성지 포함)	9월10일~13일, 10월7일~10일, 10월15일~18일, 2024년 3월21일~24일
연말연시 특별 피정	12월29일~2024년 1월1일(눈꽃산행)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밤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오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철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6시~19시30분	미사: 18시
청년(루하)기도회	(금)	19시30분~21시30분	미사: 20시30분

교육

성물·묵주조각 기초에서 전문까지
카페: cafe.naver.com/cmc04
문의: 010-5234-5044 가톨릭목공예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곳: 9월12일~26일 매주(화)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새천년복음화학교 영성교육
주제: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시편 1,3)
말씀: 박민우 신부 / 찬양: 최준익, 이경수
미사: 조성풍 담당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9월3일(일) 13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7층

예수회센터 강의·피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1) 가톨릭 지성과 영성의 현장 예수회센터 강좌
영성, 성서, 심리, 문화, 생태 강좌 개설
첫 강의 1교시는 온라인 무료 수강 가능
검색창에서 예수회센터 홈페이지(center.jesuit.com)로 들어오세요

2) 레지오·성가대·제 단체 일일위탁 피정
때: 10시~15시30분(미사로 마침) / 지도: 예수회 사제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완화(MBSR)
내용: 다양한 마음챙김 명상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자신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요가, 온몸스캔, 정좌명상, 걷기명상 등에 대해 배움 / 인원: 10명~15명
강사: MBSR 지도자·심리학 박사 / 회비: 45만원
때: 10월5일 개강, 매주(목) 19시~21시30분(8회)
OT: 9월7일 19시 / 문의(접수): 02)6364-2204, 010-3781-2204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하반기 금요영성특강
때, 곳: 16시~17시,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B1 명례방 / 문의: 02)3147-2402
접수: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홈페이지 팝업창 클릭

순교자 성월	9월8일(금)	복음의 비옥한 씨앗들	원종현 신부
	9월15일(금)	순례, 영혼을 깨우다	이형전 신부
	9월22일(금)	프랑스 선교사 다블리	백종원 신부

물이솟는샘 '예닮영성' 교육
주1회·12주·1시간30분 교육 / 문의(접수): 02)472-3217 가톨릭영성아카데미 물이솟는샘

II 우리 하느님	9월4일(월) 10시30분, 교구청 501호	홍성만 신부
복음에서 참하느님 만남	9월4일(월) 11시, 가톨릭회관 205호	주수욱 신부

성바오로수도회 말씀학교 무료 강좌
때: 10시~12시30분(미사 포함) / 매주 수업

매주 (화)	예언서 / 문의: 010-9333-6260 양은철 신부 개강: 9월5일, 성바오로 북카페 레벤(논현동, 전철 7호선 논현역 1번 출구 180미터) / 총 40주
매주 (목)	마르코(예수님 수의와 함께) 개강: 9월7일, 성바오로수도회(강북구 송중동) 문의: 010-6287-9753 김길수 수사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 이태리어·스페인어 강좌
9월~10월 가을(Ⅰ)학기 수강생 모집
개강: 9월4일~6일(강좌별로 상이함) / 회비: 32만원
주2회 2시간씩 총 30시간, 8주 과정 / 원어민을 포함한 우수 강사진, 입문~고급반 단계별 맞춤식 교육
문의: 02)705-8718(http://scec.sogang.ac.kr)

인천교구 지혜의샘 프로그램 / 문의: 010-3248-9705
곳: 지혜의샘(부천시 송내동 366-5) 5층
1) 앤데믹시대에 신앙회복을 위한 쉬운맥성경 요한묵시록
때: 9월부터 매주(수) 9시30분~17시30분
2) 순교자 성월 대피정
강의·미사: 손광배 신부, 이용권 총대리 신부
때: 9월6일(수) 10시30분~17시30분

모집

시스띠나 시니어여성합창단원 모집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지휘
곳: 시스띠나 음악원(주최, 신촌) / 문의: 010-9842-8818

서울대교구 국악성가 우리소리합창단 단원 모집
국악성가를 중심으로 함께 봉사할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 문의: 010-8615-0402 단장
연습: 매주(월) 19시, 전철 1호선 종로3가역 9번 출구

마니피캇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서울대교구 마니피캇 어린이 합창단에서 함께 노래할 어린이들을 기다립니다 / 문의: 02)338-7831
때: 9월3일(일) 15시30분 / 대상: 9세~13세 가톨릭(예비) 신자
연습: (화) 18시·(일) 13시-둘째주 명동대성당 10시 미사
오디션: 자유곡 1곡 및 음감테스트
곳: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전철 2호선 홍대입구역)
접수: 홈페이지(www.yju.or.kr) 부서소개 게시판 참조

미사

오기선요셉장학회 월례미사
집전: 김정수 신부 외 사제단 / 문의: 010-8982-9819
때, 곳: 8월31일(목) 오후 3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때, 곳: 8월29일(화) 11시, 미래사목연구소(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 문의: 031)986-7141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929-2977
때: 9월1일(금) 14시~16시 / 지도: 양창우 신부
곳: 가톨릭회관 1층(전철 4호선 명동역)

옹기장학회 월례미사
때, 곳: 8월28일(월) 11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주례: 안흥일 신부,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강론: 정영진 신부 /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빌며, 우리보다 앞서 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과 우리 각자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 봉헌합니다
문의: 02)727-2525 사무국

살레시오와 꿈 월례미사 / 문의: 02)828-3522
때: 8월28일(월) 11시 / 지도: 유명일 신부
곳: 살레시오회 관구관(신길동) 4층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모신심미사
내용: 성모마리아 신심 미사 / 문의: 02)793-2070
때, 곳: 9월2일(토) 10시,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성바오로수도회 협력자 월례미사 / 문의: 02)548-3623
때, 곳: 매월 첫째주(토) 10시30분·15시, 북카페 레벤(논현동) / 대상: 협력자 회원, 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

절두산순교성지 로사리오회 예수성심 신심미사
내용: 연령과 가정을 위한 기도와 미사
때, 곳: 9월1일(금) 11시30분, 절두산 성지(전철 2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문의: 02)3142-4434

8월 영화 치유 미사·영화제 현장 자원활동가 모집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1) 8월 영화 치유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8월30일(수)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2) 제10회 가톨릭영화제 현장 자원활동가 모집
10월12일까지 접수 / 홈페이지(caff.kr) 참조

안내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개인(우울·공황·불안·강박·트라우마·해리현상 등), 가족 및 부부갈등, 종합심리검사

제주도 관광
제주운전기사사도회에서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꼬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 수도회)
실력과 신심을 모두 갖춘 전문상담사들이 여러분 마음에 평화를 찾아드립니다 / 문의: 010-3201-0520
상담방법: 전화, PC(Zoom), 대면 모두 가능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도박·인터넷 게임 등) 중점치료,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하늘의 문 성당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4년 하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상담·문의: 02)990-9366 (월~금) 10시~16시

제23회 cpbc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때, 곳: 9월22일(금) 20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단장: 조승현 신부 / 문의: 0507-1473-2305
지휘: 이지영 / 티켓: 전석 2만원(인터파크 예매)
19시 저녁미사 후 전체 퇴장하고 입장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일 기념행사
곳: 김대건 신부님께서 순교하신 새남터 성지
10인 이상 단체는 꼭 사전 전화접수를 해주십시오
문의: 070-8672-0327 새남터성지 안내소
1) 영화 '탄생' 상영·영화 감독과의 토크쇼
때: 9월14일 12시30분~17시
2) 성극 '성 김대건 신부님의 모친 고 우르슬라 전'
9월16일(순교일) 미사와 행사(13시30분~17시)
미사: 서울대교구 총대리 손희송 주교와 사제단
순교자 현양 칸타타(Prima Ars 합창단)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사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jscen.or.kr

자아의 통합과 영성	목요반 비대면 강의 9월7일부터 매주(목) 10시~11시30분(14주), 그룹훈련 11시30분~13시, 화요반 비대면 저녁 강의 9월5일부터 매주(화) 19시30분~21시30분(14주)
전문 심리상담	가족치료, 개인, 부부, 종합심리검사, 심리정서(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남녀 요양보호사 / 주40시간, 기숙사 가능

노비따스음악중고등학교 행정실장 모집
분야: 행정실장 1명 / 문의: 02)6348-1008
대상: 세례받은지 3년 이상된 신자(행정실(장) 유경험자 우대) / 서류: 응시원서(본교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다운로드), 경력증명서, 최종 졸업증명서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강동구·성북구)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분야: 주방근무자·세탁근무자 각 0명(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9월3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 이메일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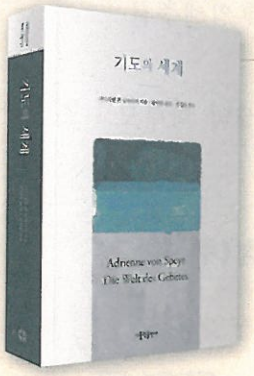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9월3일(일) 10시	서울 본부(동소문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02)924-3048(korvocation@columban.or.kr)
성 마리아 재속회	수시	양성소	02)980-0385, 010-6462-0385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선교회(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한국외방선교회	9월3일(일) 11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가톨릭출판사 인터넷쇼핑몰 www.catholicbook.kr ▼

영성 도서 추천

책 속을 산책하기 좋은 계절, 가을에 신학의 정수를 만나다



신 간

기도의 세계

아드리엔 폰 슈파이어 지음 | 35,000원

신비가 아드리엔 폰 슈파이어,
신학적 관점으로 기도를 바라보다

"기도는 그분의 신적이고 삼위일체적인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 간

진리의 목소리

베네딕토 16세 교황 지음 | 20,000원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어둠 속을 헤매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 가장 훌륭한 신학자이자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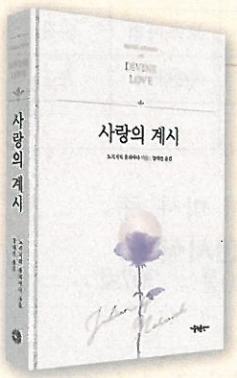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발타사르의 초기작

세계의 심장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 지음 | 24,000원

신의 뜨거운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인간의 고찰

그리스도교의 진수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역작



그리스도교 신비가의 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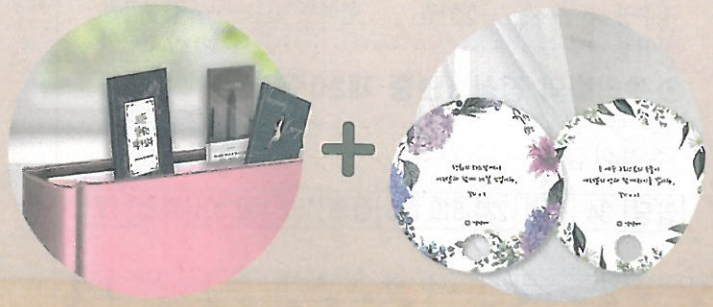
사랑의 계시

노리치의 율리아나 지음 | 24,000원

하느님께서 직접 보이신
사랑의 계시!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놀라운 모성을 전하다

베스트셀러 '한 줄 추천평' 책갈피 증정



가톨릭출판사 인터넷쇼핑몰에서 도서를 구매하시면
베스트 추천평이 들어간 '책갈피'와
시원함을 더해줄 '말씀 부채'를 드립니다.

가톨릭출판사 구입문의 02) 6365-1888 · 가톨릭출판사 인터넷쇼핑몰 www.catholicbook.kr ▼

제2295(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천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자(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디),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축 세 례

24명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축복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세례식 : 9월 3일(주일) 11시 교중미사
예절연습 : 9월 2일(토) 오후 6시 미사 후 대성전
※ 예절연습에 대부모님과 함께 참석 바랍니다.

⊙ 전입교우를 환영합니다 (7월~8월)

성명	세례명	구역/반	성명	세례명	구역/반
오종우	에드몬드	2-3	이홍성	벨라뎃다	4-2
홍진표	야고보	5-3	김현주	로즈마리	5-3
서재희	아네스	6-4	이니미	아델라이드	7-1
이주연	프란치스카	10-4			

⊙ 전입 교우 환영식
일시 : 8월 27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중

⊙ 성조들의 모후 Pr. 레지오 선서식
일시 : 8월 29일(화) 오후 7시 40분 / 307호
선서자 : 김홍범 빅토리오

⊙ 바오로 시니어 대학 개강
일시 : 9월 1일(금) 오전 10시 미사 후 / 소성전
문의 : 세실리아 분과장 (010-2035-2581)

⊙ 성모신심미사 : 9월 2일(토) 오전 10시

⊙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축복식·어린이 축복식
일시 : 9월 3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 유아세례 : 9월 3일(주일) 오후 4시 30분

⊙ 연령회 미사 : 9월 5일(화) 오전 10시

⊙ 병자영성체 : 9월 8일(금) 오전 10시 출발

⊙ 2구역 성지순례
일시 : 9월 10일(주일) / 요당리성지
문의 : 실비아 구역장 (010-5414-9123)

⊙ 성령기도회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8시 30분 / 205호
문의 : 루시아 회장 (010-9092-1708)

⊙ 주일학교와 청년 여름행사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본당의 모든 여름 행사가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대상 :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의 학부모
기간 : 8월 8일(화) ~ 11월 16일(목)
일시 : 매일 오후 8시 / 소성전
문의 : 보좌신부 (010-3854-1317)

⊙ 가을학기 토요문화학교 수강신청(주일학교)
과목 : 바이올린, 통기타/우쿠렐레, 미술, 영어, 캘리그래피
개강 : 9월 2일(토) / 매주 토요일 수업
대상 :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수강신청 : 8월 15일(화) ~
접수및문의 : 카카오채널
「연희동성당문화학교」 친구추가 후 등록

⊙ 바오로 시니어 대학 봉사자 모집
바오로 시니어대학에서 어르신들과 소통하면서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봉사시간 :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1시 30분
문의 : 세실리아 분과장 (010-2035-2581)

⊙ 교무금 책정 현황 (2023. 8.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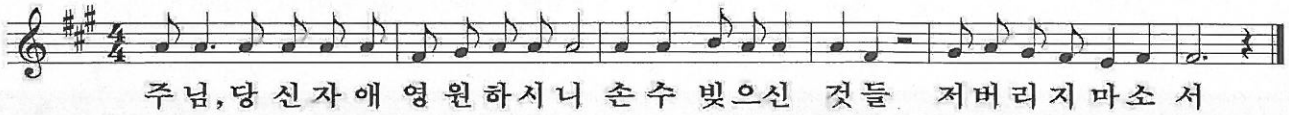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2년 책정율	2022년 납부율
2,069	802 (38.8%)	767 (37.1%)	43.8%	41.8%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감사헌금 (8월 14일~20일)

곽선모 ..... 오천원
송명순 ..... 일십만원
이지만 ..... 이십만원
손영준 ..... 일십만원
조수현 ..... 일십만원
권정자 ..... 일십만원
정수영 ..... 삼만원
한인경 ..... 일십만원
채희철 ..... 오만원
익 명 ..... 일십만원
익 명 ..... 일십만원
익 명 ..... 일십만원
익 명 ..... 이십만원
박명숙 ..... 오만원
한석우 ..... 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20주일)

교 무 금 8,425,000원
주일헌금 6,094,500원

입당	34	봉헌	220, 510, 215	성체	151, 169, 501	파견	77